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미국 워싱턴 출장자료

Contents

【 목 차 】

I. 출장 참고정보 01

무역관 정보
출장 시 유의사항

II. 미국 경제 동향 08

국가 개요
주요 경제지표
최근 경제 동향

III. 한미 교역 동향 13

IV. 워싱턴 지역정보 14

일반 사항
주요 경제지표

V. 기타 유용정보 17

관광
호텔 및 식당
유용한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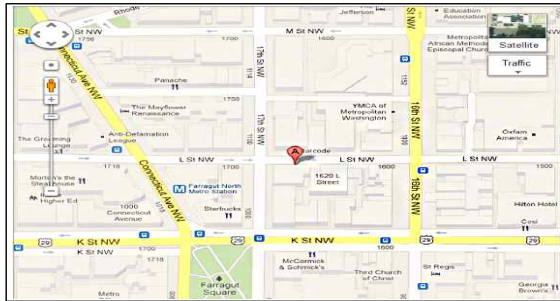


I. 출장 참고정보

1. 무역관 정보

□ 워싱턴 무역관 위치

- 주소 :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 전화 : 1-202-857-7919
- 팩스 : 1-202-525-2769
- 업무시간: AM 9:00~12:00 PM 1:00~5:00 (토·일·미 연방 공휴일 휴무)
- 교통: Farragut West역 17가 방향 또는 Farragut North역 L Street 방향
- ※ 무역관은 DC 북서부(NW) 17번가와 L Street 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



□ 공항에서 워싱턴 무역관 오시는 방법

- 1) Dulles 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25마일(40Km)
 - 교통편 : 공항버스 또는 택시(지하철 없음)
 - 공항버스(Washington Flyer) 이용 시 시내까지 편도요금은 16달러로 약 45분 소요되며 Capital Hilton Hotel 인근에서 하차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약 60달러로 약 40분 소요
- 2) National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5마일(8Km)
 - 교통편 : 지하철 또는 택시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역(National Airport Station)에서 Blue Line승차, Farragut West역에서 하차 하여 17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이 무역관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20달러 정도

2. 출장 시 유의사항

□ 출입국 / 비자

- 입국절차
 - 보통 입국 심사에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6059B)를 작성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 처음 도착한 미국 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출입국 관리 및 통관 절차를 거쳐 CBP의 입국 승인을 받게 됨.
 - 출입국 검색 시에는 생체 인식 수단(지문채취)을 사용해 여행객의 신원과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한지(신용카드를 지참하면 유리), 언제 어떻게 미국에서 출국할 것인지(여행 일정표 사본을 지참하면 도움이 됨) 등을 질문을 받을 수 있음.
 - 2013년 4월부터 미국 I-94 (출입국 기록)가 전산화되면서 미국 방문자는 입국 시에 더 이상 I-94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게 되었으나, 미국 입국 심사 직원들이 미국 체류 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입국 시 여권에 받는 이민국 도장에 입국일, 입국 신분, 체류 만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비자
 - 미국은 한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MP)을 체결하여,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 내 체류 가능 :
 - * chips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함.
 -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함.

○ 주한 미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전화 : 서울지역: 02) 6009-9170, 한국 내 모든 지역은 국번 없이: 1600-8884

□ 주요 직항 항공편

구분	노선	기 편	출발시간	출발 요일	도착시간 (현지시간기준)
직항	인천-워싱턴	대한항공 093	10:30	매일	11:15
	워싱턴-인천	대한항공 094	13:35	매일	17:10 (+1일)
경유	인천-디트로이트-워싱턴	델타항공 0158, 델타항공 6222	10:15	매일	16:53
	워싱턴-디트로이트-인천	델타항공 6262, 델타항공 0159	13:00	매일	18:25 (+1일)

□ 기후

〈미국 주요도시 연중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뉴욕	-3~4	-2~5	2~10	7~16	12~22	18~26	20~29	20~28	16~24	10~18	5~12	0~6
워싱턴	-2~6	-1~8	3~13	8~19	14~24	19~29	22~31	21~30	17~26	10~20	5~14	0~8
LA	9~20	10~20	11~21	12~23	14~24	16~26	18~29	17~28	15~26	11~23	9~20	
샌프란시스코	8~14	9~16	9~17	10~17	11~18	12~19	12~19	13~20	13~21	12~21	10~17	8~14
시카고	-9~0	-7~2	-2~8	4~15	9~21	15~27	18~29	17~28	12~24	6~17	0~9	-6~2
휴스턴	6~17	8~19	11~23	15~26	20~30	23~33	24~34	24~35	21~32	16~28	11~23	7~18

자료원 : National Weather Service

- 워싱턴 인근 날씨는 한국의 날씨처럼 사계절이 뚜렷함. 기후는 건조하여 여름에 큰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는 폭설이 없는 대체로 온화한 기후이며,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는 대체로 봄과 가을이며 4~5월과 9~10월 달이 방문의 적기임.
-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복장은 한국의 날씨에 맞게 준비하되, 봄, 가을의 경우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대비한 가디건 등의 겉옷 준비가 필요하며,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됨.

□ 시차

- 미국의 시간대는 하와이 시간대(HT), 알래스카 시간대, 태평양 시간대(PT)와 산악 시간대(MT), 중부 시간대(CT), 동부 시간대(ET)로 나누어지며 한국과의 시차는 아래 시간만큼 느낌.
- ※ 워싱턴은 미국 동부시간(ET)을 따라 통상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일광절약시간의 경우 13시간 느림.

〈미국 시차표〉

시간대	일반시차	일광절약시간	시간대 포함 도시(예)
동부시간 (ET)	-14	-13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중부시간 (CT)	-15	-14	시카고, 텍사스
산악시간 (MT)	-16	-15	덴버
서부시간 (PT)	-17	-16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알래스카시간	-18	-17	앵커리지
하와이시간 (HT)	-19	-18	하와이

* 일광절약시간은 통상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미국 달러 USD(\$)
- (지폐) \$1, \$2, \$5, \$10, \$20, \$50, \$100
- (동전) 1¢, 5¢, 10¢, 25¢, 50¢, \$1 * \$1(달러) = 100¢(센트)
- 환율: 1달러=1,087원 (*2017.12.19 매매기준율 적용)
- 미국 달러와 원화 간 환전은 은행, 공항 등에서 가능.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 간 환전은 환전소 및 큰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가급적 출국 전 환전하여 가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 호텔, 백화점, 대형 식당 및 상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점도 있어 현금 지참이 필수
- 미국 현지에서는 VISA와 MASTER 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

□ 전압

- 110V, 60 Hz를 사용. 한국과 전압 사용이 다르니, 출국 전 한국용 멀티탭을 준비해야함.

□ 교통

- (택시) 기본요금은 3.25달러(1/8마일기준)이며 기본 거리를 초과한 후 부터는 1/8마일 당 0.27달러의 요금이 가산됨. 승객 당 0.25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1 마일 = 1.6km, 1/8마일 = 0.2km
- (버스) 일반 요금은 1.75달러(교통카드 이용 시 동일)이며, 구간별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음.
- (지하철) 피크 시간 때의 기본요금은 2.15달러로 일반 기본요금인 1.75달러보다 약간 비싸며, 따로 지하철카드를 구매하지 않으면 매 현장 표 발행 시마다 1달러의 발행료가 추가로 부가됨. 구간별로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철표 판매 기계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표 발행 가능

〈워싱턴 지하철 노선도〉





□ 통신

- 휴대폰
 -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버라이존(Verizon), AT&T, 티모빌(T-Mobile)등 3개사가 있으며, 유심칩(USIM)을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선결제(prepaid) 방식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 달 이상의 일정일 경우에 사용하길 권장함.
- 국제전화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며, 국제전화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사용가능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미국 → 한국	일반전화	00-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00-82-낸 앞의 0을 제외한 핸드폰번호
	한국 → 미국	일반전화	001-1-전화번호
		휴대전화	001-1-전화번호
국내 전화	미국 내 통화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 와이파이
 - 미국 내 일반 가게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스타벅스 및 기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무료 사용 가능함

□ 현지 공휴일 정보

- 출장지향 기간
 - 연초/연말 :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연시에는 비즈니스 거래 소강상태.

〈미국 연방 공휴일〉

공휴일 명	기 간
신년	1월 1일
마틴루터킹 탄생일	1월 3째주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	2월 3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1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	10월 2째주 월요일
제헌 군인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	11월 4째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단,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공휴일을 준수

□ 안전

- 신변 안전
 - 워싱턴 D.C.는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 시 안전한 도시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대부분의 주요 볼거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비즈니스 상식 및 에티켓

- 식사
 - 미국인들은 저녁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관련 식사 약속은 오찬 또는 조찬에 이루어짐.
 -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줄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팁은 통상 식사비용의 오찬시 15%, 만찬시 18~20% 정도가 적정함)
 -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 요망.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것이 좋음.
 -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전달을 요청해야 함.
 -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함.
- 복장
 -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함.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 등과 같은 경우는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장은 회색이나 군청색 정장을 유지하면 되나 울긋불긋한 복장은 피해야함. 색깔이 있는 넥타이는 무방함.
- 인사
 -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임.
 - 약속을 나누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
 -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임. Mr. Mrs. Ms. 등이나 직업을 뜻하는 명칭을 성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존경의 의미를 담음. 추후 일정정도 관계가 성립되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함.



○ 선물

-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되며, 선물도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임. 선물이 50달러가 넘을 경우 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되어있음.
-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에는 꽃이나 화분, 과일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임.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

○ 약속

-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임.
- 약속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약속 1일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함.

○ 문화적 금기사항

-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절대 삼가.

II. 미국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경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지도자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제 45대 대통령 (2017년 1월 취임)
수도	워싱턴 D.C. /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주요도시	New York(841만 명), Los Angeles(388만 명), Chicago(272만 명), Houston(220만 명), Philadelphia(155만 명), Phoenix(151만 명), San Antonio(141만 명), San Diego(136만 명), Dallas(126만 명), San Jose(100만 명)
위치 및 면적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80만km ²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 세계 3위의 면적. 농지 47%와 산지 29% 등으로 구성
인구	3억 2천만 명 (2017년 기준, 세계 3위)
민족	백인(80%), 흑인(12.9%), 아메리카 원주민(1%), 아시아계(4%),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0.2%), 2개 이상 인종(2.4%) ·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 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7.1%에 해당
언어	영어 (일부 지역은 스페인어 통용)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US조 달러)	16.7	17.4	18.0	18.5	19.2 [2017. 2분기 기준]
1인당 GDP(US 달러)	52,705	54,502	56,084	57,294	59,609
경제성장률(%)	1.7	2.4	2.6	1.6	-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1.6	0.1	1.3	-
실업률(%)	7.4	6.2	5.3	4.9	4.2 [2017. 9 기준]
상품 교역액(US조 달러)					2.53 [2017. 8 기준]
증감률(%)	3.84(△0.64)	3.97(△3.41)	3.75(▽5.70)	3.64(▽2.88)	
수출(US조 달러)	1.57(△2.12)	1.62(△2.70)	1.50(▽7.32)	1.45(▽3.25)	1.00 [2017. 8 기준]
수입(US조 달러)	2.26(▽0.36)	2.35(△3.90)	2.24(▽4.59)	2.18(▽2.63)	1.52 [2017. 8 기준]
무역수지 (US억 달러)	-6,894(△5.61)	-7,351(▽6.63)	-7,456(▽1.42)	-7,354(△1.37)	-5,203(△6.99) [2017. 8 기준]
FDI (실행기준, US억 달러)	2,061	1,762	3,532	4,252	-
외환보유고(US억 달러)	1,457	1,322	1,185	1,147	1,245 [2017. 8 기준]
총외채(US조 달러)	16.4	17.2	17.7	18.3	-
환율(원/US\$달러)	1,095.04	1,053.22	1,131.49	1,160.50	1131.15 [2017. 10. 23 기준]

* 자료원: (IMF), 美 재무부,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은행,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obal Trade Atlas (-는 미발표수치)

3.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

-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 3.3%, 최근 3년간 최고치 기록
 - 2017년 10월 미국 실업률은 4.1%로 2001년 2월 이후 최저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증가



* 자료원: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자료원: Trading Economics

□ 대외무역

- (교역) 2016년 교역액은 약 3조 6,42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
 - (무역수지) 2016년 무역적자가 7,354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
- (수출) 수출은 1조 4,537억 달러로 전년대비 3.25% 감소
 -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순
 -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 항공, 자동차, 에너지, 의약품 등
- (수입) 수입은 2조 1,8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
 -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순
 -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오일, 전화기,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2014-2016 대외무역추이 비교표 (단위 :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수 출	1,623,443	1,504,597	1,453,721
수 입	2,345,187	2,241,664	2,189,183
총 액	3,968,630	3,746,261	3,642,904
무역수지	-721,744	-737,066	-735,462

* 자료원 : 美 상무부

Ⅲ. 교역동향

1. 주요교역동향

〈2017년 10월 기준 미국의 10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캐나다	234,066	18.36	중국	412,970	21.34
2	멕시코	201,599	15.81	멕시코	261,302	13.50
3	중국	103,981	8.16	캐나다	248,387	12.84
4	일본	55,488	4.35	일본	113,053	5.84
5	영국	46,714	3.66	독일	96,893	5.01
6	독일	44,132	3.46	한국	59,695	3.08
7	한국	39,888	3.13	영국	43,762	2.26
8	네덜란드	35,219	2.76	인도	40,987	2.12
9	홍콩	33,126	2.60	이탈리아	40,301	2.08
10	브라질	30,526	2.39	아일랜드	40,121	2.0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대상국이며, 총 교역량에서는 6위를 차지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 계단 상승
- 미국의 수출은 NAFT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30% 이상 치중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는 중국산이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며 20% 이상 차지
-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2015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처음으로 3%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2017년 10월 기준 미국의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HS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HS 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1	84	기계류	166,343	13.05	85	전자기기	284,378	14.39
2	85	기계류전자기기	143,649	11.27	84	기계류	281,837	14.34
3	27	광물연료	110,076	8.63	87	수송기계	239,166	12.23
4	87	수송기계	108,392	8.50	27	광물연료	161,382	8.79
5	88	항공기부품	107,387	8.42	30	의약품	78,961	3.78
6	90	광학기기	68,895	5.40	90	광학기기	70,184	3.41
7	39	플라스틱	51,586	4.05	98	수출반송품목	60,475	2.96
8	71	금속류	50,934	3.99	94	가구 및 침구	52,248	2.52
9	30	의약품	38,120	2.99	71	금속류	48,749	2.66
10	98	특별 분류 품목	36,622	2.87	39	플라스틱	43,578	2.15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 수출입동향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10월 15일자)
교역량	103,564	115,568	113,856	109,678	90,945
증감률(%)	1.67	11.59	-1.48	-3.67	-17.07
수출	62,052	70,284	69,832	66,462	52,222
증감률(%)	6.03	13.27	-0.64	-4.83	-21.4
수입	41,511	45,283	44,024	43,215	38,722
증감률(%)	-4.22	9.08	-2.78	-1.84	-10.3
무역수지	20,540	25,001	25,807	23,246	13,500

* 자료원: 한국 관세청

- (교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과 함께 2011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하락세
- (수출입) 2017년 10월 기준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21.4% 감소했으며, 미국산의 수입은 10.3% 감소
- (무역수지) 한국의 對미국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6년 이후로 하락세를 보임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

〈2017년 10월 기준 對미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6(동기)	2017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54,997	56,942	3.54
1	87	수송기계	17,619	16,496	- 6.37
2	84	기계류	9,162	11,574	26.33
3	85	전자기기	11,733	10,253	- 12.61
4	27	광물연료	2,028	2,760	36.10
5	73	철강제품	1,430	2,215	54.80
6	39	플라스틱	1,756	2,023	15.19
7	40	고무	1,524	1,492	-2.11
8	72	철강	1,487	1,152	-22.52
9	90	광학기기	1,085	1,053	-2.95
10	29	유기화합물	819	803	-2.0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對미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미국 제조업 회복과 함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해 온 차량(수송기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며,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4.41% 감소해 153억 달러를 기록

- 철강제품과 철강의 對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61.86% 증가, 22.22% 감소하여 각각 7위에서 5위로 상승, 8위를 그대로 유지
- 10대 품목 이외의 특이 동향으로는 한국산 화장품의 對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6.21% 증가

□ 對미국 주요 수입품목

〈2017년 10월 기준 對미국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6(동기)	2017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35,275	42,176	19.56
1	84	기계류	5,477	8,175	49.25
2	85	전자기기	5,303	5,931	11.83
3	90	광학기기	2,801	3,556	26.95
4	27	광물연료	1,452	3,458	138.16
5	87	수송기계	1,770	1,743	-1.52
6	88	항공우주	2,254	1,639	- 27.28
7	29	유기화합물	1,322	1,432	8.33
8	02	육류	1,178	1,425	20.93
9	10	플라스틱	1,249	1,279	2.37
10	39	곡물	944	1,234	30.7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원자로, 보일러 등 기계류 및 부분품이며, 전년 동기대비 49.25% 증가
- 2017년 10월 기준 對미국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광물연료 품목으로 138.16% 증가
- 반면, 항공우주 관련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27.28% 감소

나. 한미투자동향

□ 한국의 對미 투자 동향

- 2016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해외 직접투자는 약 129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3년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연도별 對미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고법인(개)	신고금액(억\$)	송금횟수(회)	투자금액(억\$)
2011	1,285	471	166	1,955	73
2012	1,347	493	70	2,004	57
2013	1,334	508	59	1,963	58
2014	1,549	523	94	2,230	58
2015	1,623	542	108	2,244	70
2016	1,727	509	180	2,350	129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의 對한 직접투자(FDI) 동향

-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약 39억 달러로 전년대비 하락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세였던 신고 건수도 대내외 악재로 인해 2016년 373건으로 하락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FDI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건수	신고금액(천\$)	신고건수	신고금액(천\$)	신고건수	신고금액(천\$)	신고건수	신고금액(천\$)	신고건수	신고금액(천\$)
316	3,674,116	266	3,525,455	305	3,606,131	390	5,478,886	373	3,875,956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V. 워싱턴 지역정보

1. 일반 사항

명칭	워싱턴 특별시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특징	미국 50개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특별 행정구이자 연방정부 직할 독립 도시
정부	- 시장 : Muriel Bowser (민주당) *2015년 취임 - 연방하원의원 : Eleanor Holmes Norton
면적	- 도심 : 177km ² - 광역지역 전체 : 14,412km ² *서울(605km ²)의 약 24배
인구	- 도심 : 68만 명 ('16년) - 광역지역 전체 : 613만 명 ('16년)
GDP	- 도심 : 1,093억 달러 ('16년) - 광역지역 전체 : 5,092억 달러 ('16년) *전년 대비 3.1% 증가
산업별 고용	정부관련(34%), 전문직/비즈니스서비스(24%), 교육/건강서비스(19%), 레저(11%), 기타서비스(10%)

* 워싱턴광역지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미국의 7번째(인구기준)로 큰 광역지역임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워싱턴 광역지역		비중(%)
	수치	증가율(%)	
인구(만 명)	613만 명		1.9
면적(만 km ²)	14,412		0.15
GDP(억 달러)	5,092	3.1	2.7
실업률	3.9 ('17년 2월)	-	-
수출(억 달러)	62 ('17년 1 ~ 6월)	-1.3	0.82
개인당 평균지출(달러)	\$81,293		* 미국전체평균 : 54,715
개인당 평균소득(달러)	\$64,882		* 미국전체평균 : 49,571

* 자료원: 미국 통계청

3. 워싱턴 지역경제 위상

□ 워싱턴 경제의 현황

- 연방정부 기반의 경제 구조
 - 연방정부가 워싱턴 일대에서 15만 명의 공무원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 고용의 37% 이상을 담당
 - 2001년 이후 연방정부의 워싱턴지역 내 지출이 5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함. 특히 워싱턴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비율이 증가
- 민간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
 - 포춘 선정 미국 1,000대 기업 중 23개사의 본사가 워싱턴 광역지역에 소재
 - * Inc.가 선정하는 500대 고속 성장기업 보유 숫자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
 - 미국의 수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총 6,600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비영리기관 1,500개가 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
- 첨단산업의 메카로 각광
 - 항공방위 산업, 생명공학, 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성장하여 5만 명 이상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미국 보건정책과 연구의 핵심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명공학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전 세계의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을 선도
 -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보다 3만 명이나 많은 22만 명 이상의 IT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힘
-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 금융, 미디어, 관광 등 지식 고부가가치 산업이 진출해 있음

□ 워싱턴 지역 주요산업 동향

- 항공방위 산업
 -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12대 주요 방위산업체의 총 매출액은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방산제품 수출은 전 세계 군수품 시장의 37%, 수입은 13.5%를 차지하는 등 항공방위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여겨짐
 - 최근 미국 방산 업체의 사업 방향은 해외 군수 관련 업체를 합병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형태를 보이며, 자국 내 방산예산의 감축으로 해외 수출 기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국방부와 각종 군 기관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광역지역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총본산으로 이 분야에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바이오/제약 산업

- 미국은 전 세계 생명공학관련 특허의 2/3을 보유하여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구가
- 워싱턴 지역에는 국립보건원(NIH), 식약청(FDA),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등 바이오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단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국 3대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
- 특히 몽고메리카운티를 중심으로 400여 바이오 연구개발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전통 제약기업과 신생 바이오기업 간 기술제휴, M&A, 라이선싱 등이 활발히 진행 중

○ IT 산업

- 워싱턴지역은 IT분야 지역총생산 전미 1위 지역으로서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시에도 워싱턴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
- 상용품 개발 위주의 실리콘밸리/보스턴과 달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의 IT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여 델러스, 아틀란타에 이어 미국 내 3위 텔레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를 형성

○ 서비스 및 관광 산업

- 정치, 사법, 행정의 중심지답게 세계적인 법률회사들이 워싱턴 중심의 K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법률서비스 외에도 의회를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의 역할도 겸함
- 조지타운, 존스홉킨스, 조지워싱턴 대학 등의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소재하여 교육, 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4%에 달함
- 매년 약 1천5백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은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광역 워싱턴 지역은 행정부 소재지 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관광 수입이 시 전체의 2번째로 큰 수입원일 만큼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음

V. 기타 유용정보

1. 관광

□ 워싱턴 기념탑 (Washington Monument)

-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완전 석조 구조물(69m 높이)로서 1848년 기석이 만들어진 이후 완성까지 37년이 걸렸다.
- 탑의 주위에는 미국 50개 주를 상징하는 국가가 둘러져 있고 원래 이용 가능했던 탑 꼭대기의 전망대는 현재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로 인해 2019년 초까지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 기념탑 앞으로는 길이 690m에 달하는 인공 수조인 리플렉팅 풀이 조성되어 있어 해가 진 후 조명을 밝힌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물위에 비친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 국회의사당 (The Capitol)

- 미 상원, 하원 및 그 부속기관을 수용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표 건물로서,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건설되어 중앙의 돔아래는 유명한 로턴다로, 둘레의 벽에는 콜럼버스부터 미국의 역사를 그린 유화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 건물의 한 가운데에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의회가 개최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을 볼 수 있다.



□ 백악관 (White House)

- 약 200년간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의 역할을 해온 백악관은 총 132개의 방이 있는데, 1층의 이스트 룸과 그린 룸, 블루 룸, 레드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 링컨 기념관 (Lincoln Memorial)

-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리스 신전 모습을 본떠서 지어졌으며, 36개의 그리스양식 기둥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있다.



□ 워싱턴 국립 대성당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은 영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성당으로, 국가적 차원의 범종교적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립대성당”으로 불린다 (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국장(國葬) 거행).
- 1891년 의회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대성당 건립이 결정되어, 100년이 지난 뒤인 1990년에야 완공되었다.



□ 스미소니언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ion)

-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유물과 순수 예술 작품들의 정수들은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관리 하에 있다. 1846년 ‘인류의 지식 증가와 보급을 위해’ 영국인 제임스 스미스에 의해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프리어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현재 1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이 모인 종합 박물관이다.



□ 국립미술전시관 (National Gallery of Arts)

- 1941년 완공된 국립 미술관은 서관과 동관, 조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 약 2만점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예를 들어 렘브란트, 루벤스, 고갱, 고흐,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13세기에서 19세기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 마운트 버논 (Mt. Vernon)

-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마운트 버논은 그가 22살 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살던 장소이다.
- 워싱턴이 살던 저택과 그의 무덤이 있으며 저택 안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지 워싱턴 생전 자취를 느끼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2. 호텔 및 식당

□ 주요 호텔

호텔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윌라드호텔	DC 도심	202) 628-9100	www.willardwashington.com
JW 메리엇	DC 도심	202) 393-2000	www.marriott.com
캐피털 힐튼	DC 도심	202) 393-1000	www1.hilton.com
그랜드하얏트	DC 도심	202) 582-1234	www.grandwashington.hyatt.com
웨스턴 알링턴	알링턴	703) 717-6200	www.westinarlingtongateway.com
메리디언호텔	알링턴	703) 351-9170	www.starwoodhotels.com/lemeridie
세라톤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448-1234	www.sheratontysonscorner.com
메리어트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734-3200	www.marriott.com

□ 주요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만두(한식)	202) 289-6899	453 K Street, NW, DC 20001
우래옥(한식)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한강(한식)	703) 256-7077	724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펠리스(한식)	703) 256-9292	7131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빛고을 순두부(한식)	703) 333-3436	4121 Chatelain Rd #100, Annandale, VA 22003
스시타로(일식)	202) 462-8999	1503 17th St NW, DC 20036
스시아오이(일식)	202) 408-7770	1100 New York Ave NW, DC 20005
Tony Cheng's(중식)	202) 842-8669	619 H St NW Washington, DC 20001
장원반점(중식)	703) 354-1950	4210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올드에빗 그릴(양식)	202) 347-4800	675 15th St NW, DC 20005
Founding Farmers(양식)	202) 822-8783	1924 Pennsylvania Ave NW, DC 20006



3. 유용한 연락처

☐ 주요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경찰 및 엠블런스	911	-
긴급의료시설	국번 없이 411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02-939-5600	245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202-939-5653	232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 무역관 연락처

- (대표전화) +1-202-857-7919
- (주소)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성명/직위	전화번호(직통)
이종건 / 워싱턴무역관장	202-857-7919 (101)
박태화 /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202-857-7919 (108)
김영상 / 차장	202-857-7919 (103)

www.kotra.or.kr